초박빙 혼전…여야 조직 풀가동

내일 재보선 …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

막판 세몰이 통해 부동표 흡수 나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임박했지만 판세는 오히려 초 박빙의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막판 세몰이를 통해 부동표 확보에 나서는 한편 당 내외의 조직을 총 가동,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각 정당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 5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 덕진을 제외하고 모두 초 박빙의 관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 표심의 향배에 따라 '5대 0'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가운데 조직력을 최대한 가동, 투표 당일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대 재보선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재보선도 투표율이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 박빙 판세에 따라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에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 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무소속 후보들은 학연, 지연,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어느 후보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 모으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판 대규모 조직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막판 부동층의 표심 향배도 초 박빙의 구도의 재보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위기 국면에 터진 박연차 회장의 정치권 로비 파문 등으로 부동층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1%의 표심이 박빙의 구도에서 의외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 진영에서는 막판 대규모 세몰이를 통해 부동표심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규모 유세전을 통해 세몰이에 나서는 한편, 접전 지역을 누비며 이삭줍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4·29 재보궐 선거가 막판까지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을 선거에서 민주당은 홍일표 인천시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호별방문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주 완산 갑 선거에서는 무소속 신건 후보의 재산 신고를 둘러싸고 고발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봉균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 후보가 아들 소유의 건물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며 전주 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신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강봉균 의원과 최규성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마스크 벗지 말래요"

26일(현지시간) 멕시코 티후아나 공항에서 악셀 산체스가 위생 마스크를 쓴 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中-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美-휴교조치 확산

지구촌 SI 유입 차단 안간힘

〈돼지 인플루엔자〉

멕시코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돼지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자가 103명으로 늘어났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의심 환자는 1천614명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인체 감염 사태가 세계 각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27일에도 유입 차단을 위해 부심했다.

중국 정부는 27일 멕시코와 미국 일부 주(州)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성명을 발표, 돼지 인플루엔자가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인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 캔자스,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휴교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봄방학을 이용해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으로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 중 8명이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뉴욕 퀸즈의 성(聖) 프랜시스 사립고는 우선 오는 28일까지 휴교에 돌입한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슈어츠-시볼로-유니버설 시티 독립 학군에서는 학군 내에 있는 14개 학교 모두가 다음주까지 휴교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페어오크스 소재의 세인트멜스가톨릭스쿨 역시 오는 30일까지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비롯,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전염성 질환 확산 사태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책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사스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지만, 돼지 인플루엔자 사태 확산에도 불구하고 27일의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차분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광주시의회, 도청별관 때늦은 해법찾기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도청별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양혜령 위원장은 "도청별관 철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상호 오해와 불신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승적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핵심주체인 추진단과 5월 단체가 모두 빠진데다 법원이 28일 농성장 철거를 위한 2차 강제집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찬반 토론회를 연 것은 때 늦은 감이 있다"며 문화수도특위의 뒷북 대응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발언에 나섰던 방청객 최모씨가 5·18 단체 회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전갑길, 민주 복당 신청

○…무소속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이 27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전 청장이 팩스와 우편으로 복당 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29일 재보선이 끝난 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청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복당 신청을 한 전 청장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절대적인 과제였고 이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당시 탈당했다"며 "이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 돌아가서 한국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전 청장이 이번 복당 신청을 계기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방통위 인사 호남소외 극치"

이정현 의원 "승진대상 22명중 2명 승진"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에서 호남출신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연말 방통위 5급 승진인사는 특정지역 소외의 극치였다"며 "통계상 호남 소외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방통위 5급 승진 인사 출신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호남 출신 승진대상자는 전체 80명 중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실제 승진자는 2명에 불과, 승진율이 9.1%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승진자 25명의 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반면, 영남 출신 승진자는 총 대상자 17명 중 7명으로 승진율은 41.2%나 됐다. 서울 출신은 19명 중 6명(31.6%), 경인 출신은 5명 중 3명(60.0%), 충청 출신은 9명 중 4명(44.4%), 검정고시 출신은 3명 중 2명(66.7%)이었다. 강원 출신은 대상자 2명 중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호남 출신자는 대상자는 전체 80명 중 28%나 되는데 승진자는 9%에도 못 미치는 2명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공약이자 국민통합의 필수요건인 탕평인사를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인사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심지어 연구소 더 나아가 국회사무처에서까지 범정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일반기업까지도 확산하고 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분노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美, 쿠바와 대화 채널 구축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쿠바와 50년간의 냉각 관계를 끝내고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국부무와 쿠바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양국 정부가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식적인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회담에서는 마약 밀매나 이민 문제 등 광범위한 쟁점들이 거론될 것이며 양국간 문화·학술적 교류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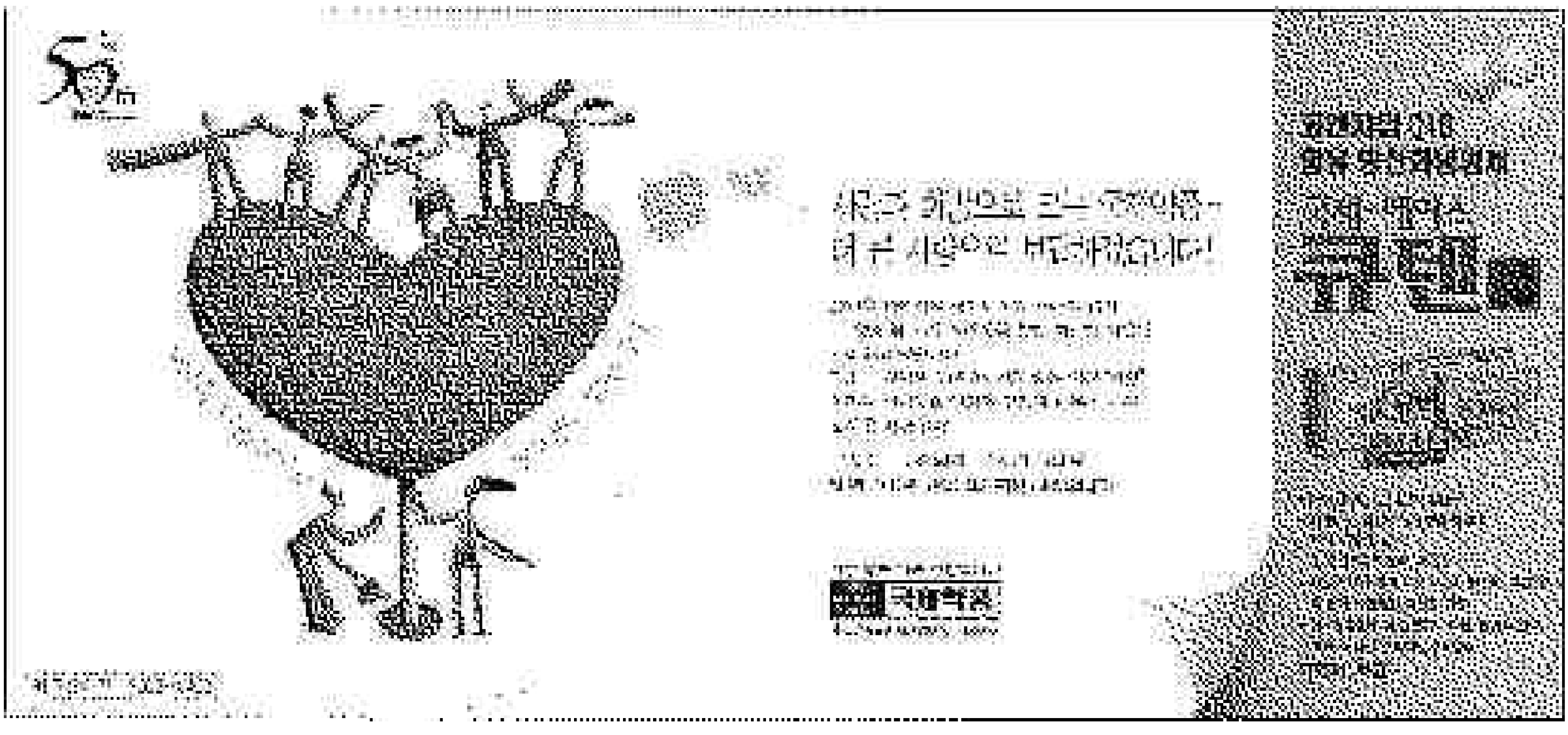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대화들이 미국과 쿠바가 "진지하고 정중하며 열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터키, IMF에 300억~400억弗 요청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가 300억~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CNN 터키 방송은 워싱턴에서 진행된 터키-IMF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 27일 이같이 보도했다. IMF는 양측간 구제금융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지난 2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구제금융 지원에 관한 합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터키 NTV가 보도했다.

2001년 경제위기로 IMF 차관 100억달러를 받았던 터키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한이 만료됐지만,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신규 자금이 필요해 지난 1월 IMF와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 등에 대한 이견을 들어 협상을 중단했다가 이달 초 재개했다. /연합뉴스